

프랑스의 영화사 용자지원제도 SOFICA



프랑스의 영화사 융자지원제도 SOFICA

영화진흥위원회 프랑스 통신원 김민채

발행인 김세훈

발행일 2016 년 4 월 11 일

-

영화진흥위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경남정보대 센텀산학캠퍼스 13 층, 14 층

전화 (051)720-4700 / 팩스(051)720-4849

홈페이지 www.kofic.or.kr

©영화진흥위원회, 2016

Contents

01

들어가는 글 / 1

02

도입 배경 / 2

03

SOFICA 시스템의 구성과 특징 / 4

04

사례 조사 / 11

05

나오는 말 / 12

06

자료 출처 / 17

07

별첨 / 14

들어가는 글

본 연구 보고서에서는 프랑스의 영화시청각물재정지원법인인 SOFICA (Sociétés de financement de l'industrie cinématographique et de l'audiovisuel)에 초점을 맞추어 프랑스의 영화사
용자 지원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프랑스 독립영화의 제작에
필수적 장치인 SOFICA 시스템의 도입 배경, 운영 시스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는 것으로
프랑스 국립영화센터(CNC) 등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료, SOFICA 시네마쥬(Cinémathèque), 코피노
바(Cofinova)와의 대면 인터뷰 내용이 본 보고서 내용의 주요 출처이다.

1. 도입 배경

올해로 31년 째를 맞은 영화시청각물재정지원법인(이하 SOFICA) 제도는 1985년 7월 11일 법령에 의해 구성된 시스템으로 연간 최소 140편의 장편 영화가 제작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영화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두 가지 분명한 목적 하에 도입된 제도이다. 1980년대 중반 프랑스에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에는 이유가 있다. 1980년대 초, 프랑스의 영화 제작 산업은 급속도로 수축되었다. 당시 연 관람객의 수가 1억 1000만 명까지 떨어졌고, 배급사의 미니멈 개런티도 거의 사라져 제작사들은 영화 제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제작되는 영화의 수도 점점 줄어들어 프랑스 영화 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SOFICA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2. SOFICA 시스템의 구성과 특징

오늘날 SOFICA 시스템은 프랑스 영화 산업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장치로 평가되고 있다. 2015년 12월 7일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Libération)의 기사에 따르면 현재 제작되고 있는 프랑스영화 2편 중 1편(2014년 기준 258편의 영화 중 103편)이 이 SOFICA의 투자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영화 산업에서 SOFICA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독립영화 제작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이러한 공적 장치는 유럽연합 내의 국가 중에서도 유일하다.

1) SOFICA 시스템의 운영 원리

SOFICA 시스템은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제작사들에게 제작비를 투자하는 제도로 프랑스 국립영화센터(이하 CNC)의 통제를 받는 공적 시스템이다. 2016년 현재 운영되고 있는 SOFICA는 총 11개 회사¹이며, 투자금 총액은 61,987,130 유로이다. 회사마다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3,000,000 유로(Cinéventure)부터 9,600,000유로(Cinéimage)까지 상이하며 총액은 해당 연도 내에 모두 투자되어야 한다. 민간 투자자²를 모으기 위해 SOFICA는 전년도 6월부터 한 개 혹은 여러개의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 상품을 판매한다.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 간 모인 투자금이 다음 연도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된다. 투자금이 모두 모이면 SOFICA는 새로운 회사³를 설립하고, 투자를 시작한다.

¹ A Plus Image, Cinéimage, Cinéventure, Cofimage, Cofinova, Indefilms, La Banque Postale Image, Manon, Palatine Étoile, Soficinema, Sofitvciné로 매년 CNC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² SOFICA 시스템은 민간 투자자들의 투자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민간 투자자의 자격 조건은 프랑스 정부에 소득세(impôt sur revenu)를 내고 있는 개인(법인 제외)에 한 한다. 2002년까지 감세 비율은 48%였는데, 세제 혜택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민간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2016년 현재 세금의 36%의 감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소득이 높을 수록 세율이 높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 혜택, SOFICA를 통한 투자에 관심이 많다.

³ SOFICA 회사들은 해마다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다. 회사 고유 명칭 뒤에 숫자를 붙여 지속 연도를 나타내는데,

2) SOFICA 현장

앞서 언급한 것처럼 SOFICA는 CNC의 엄격한 통제하에 운영된다. SOFICA 시스템의 모든 제약 조건들은 CNC와 SOFICA가 합의한 SOFICA 현장에 명시되어있다. 이를 지키는 것이 다음 년도 SOFICA로 선정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 SOFICA는 영화와 시청각물 산업을 보호하는 공적 장치로서 독립영화를 기본으로 SOFICA의 지원이 절실한 제작비 800유로 미만의 중예산 영화, 감독의 초기작(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영화), 애니메이션, 기타 시청각물 등에 투자할 것을 요구받는다. 투자 조건과 투자 비율은 SOFICA 회사마다 다르다.

3) 투자 방법

SOFICA가 영화 제작에 투자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아도스망 방식, 또 다른 하나는 아도스망이 아닌 방식이다. SOFICA의 투자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아도스망(adossement)이라고 불리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한다. 아도스망은 프랑스어로 '(무엇인가에) 기댄 상태'를 의미하는데, SOFICA 시스템 내에서는 '매입 약속(promesse de rachat)'을 뜻하며, 정해진 기간 후에 정해진 가격으로 매입할 것을 약속받고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도스망 형식의 투자는 SOFICA 시스템의 위험성을 줄여준다.

3.1) 아도스망 방식

아도스망 방식의 투자는 위험도가 없는 대신 수익이 거의 없는 투자이다. 제작사에게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제작사 혹은 배급사로부터 그 금액을 정해진 기간 후(보통 3년)에 돌려받는 방식이다. 제작사들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매우 낮은 대출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3.2) 아도스망이 아닌 방식

3.2.1.) 제작 협력 계약 (Contrat d'association à la production, CAP) : 위험도가 매우 높은 투자

개별 영화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위험도가 높은 투자에 속한다. 영화가 흥행 여부에 따른 위험도가 높은 대신 영화에 대한 각종 권리(제작사와 같은 기간, 30년)를 갖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해당 권리(TV 판권 등)를 되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다. SOFICA는 이 방식으로 독립

예를 들어 시네마쥬 11(Cinéma 11)이라 함은 11번째 구성된 시네마쥬 회사임을, 코피노바 13은 13번째 구성된 코피노바 회사를 드러낸다. 숫자가 클 수록 해당 연도만큼 SOFICA로서 기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화에만 투자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수익률은 40%~120% 정도이다⁴.

3.2.2.) 개발 단계를 위한 협약 (Convention de développement) : 위험도가 적은 투자

SOFICA 산하의 자회사(시네마쥬의 경우, 시네마쥬 11 개발(Cinémage 11 développement))를 만들어 시나리오 단계, 각색권 구입 등 영화 개발 단계에 투자한다. 이 경우 제작사는 SOFICA에게 받은 금액을 첫 촬영일 이전에 갚아야 한다. 영화 개발 단계에 투자한 SOFICA는 투자한 대가로 완성된 영화에 대한 최우선 교섭권(first look)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방식의 투자는 SOFICA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적은 투자 방식에 속하는데, 그 이유는 제작사의 프로젝트가 실패하여 영화를 만들지 못했을 경우나 제작사가 파산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투자 영화 선정 절차

SOFICA가 투자할 영화를 선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SOFICA 직원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총 10여 명)가 구성⁵된다. 6주마다 1번씩 일년에 8-9차례의 회의를 거쳐 투자할 영화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투자가 결정되는 영화는 1년에 25편⁶ 정도이다. 투자 영화를 선정할 때에는 영화를 예술적, 경제적 관점⁷에서 모두 평가하며 어떤 제작사와 배급사가 제작과 배급을 맡았는지, 해외 배급사는 어느 곳인지, 해외 판매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TV 판권/프랑스 내 상영권 매출을 얼마나 될지 등을 면밀하게 살핀다. SOFICA의 입장에서는 이 단계가 투자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결정적 단계가 된다.

3. 사례 조사

1) 기업 조사 (SOFICA)

본 보고서를 위해, SOFICA 두 회사를 방문하여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SOFICA 시네마쥬(Cinémage)의 크리스토프 살바잉(Christophe Salvaing)과의 인터뷰는 2016년 3월 28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되었으며, SOFICA 코피노바(Cofinova)와의 인터뷰는 2016년 3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 알렉시스 당텍(Alexis Dantec), 클로에 부이올

⁴ SOFICA 시네마쥬의 경우

⁵ 이들은 보통 영화의 작품성, 상업성, 해외 성공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⁶ 투자위원회에서 결정된 영화는 1년에 50여 편인데, 결정 이후 제작사와의 세부 사항 조율 결과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⁷ 참고로 캐스팅이 영화의 흥행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한국과는 달리 프랑스는 시나리오를 매우 중요시한다.

(Chloé Bouillol)를 만나 진행되었다. 인터뷰에서는 회사의 특징, 투자 작품 선정 방법, 투자 방법, 구체적인 사례 등 크게 네 가지 사안을 다루었다. 이를 바탕으로 SOFICA 기업에 대해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1) 시네마쥬(Cinéma) 11

올해 SOFICA로서 11번째 해를 맞이한 시네마쥬는 시네마쥬 1 시기부터 매년 90-100만 유로 정도씩 투자금을 올려, 2015년 9,600,000 유로의 투자금을 할당받았다. CNC와 약속한 투자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총 투자금의 55%를 아도스망이 아닌 방식으로 투자해야한다.
2. 아도스망 계약은 아가 필름(Agat Films & Cie), 익스 니힐로(Ex Nihilo), 레 프로둡시옹 뒤 트레제르(Les Productions du Trésor), 콰드(Quad), 스피렌디도(Splendido), 레 필름 뒤 24(Les films du 24), 유제세(UGC), 파테 프로둡시옹(Pathé Production)⁸, 와일드 번치(Wild Bunch)와 체결 가능하다.
3. 아도스망 방식이 아닌 투자금의 100%를 독립 영화에 투자해야한다.
4. 위험도가 높은 제작 협력 계약(CAP) 방식의 투자금 중 65%를 800만 유로 미만의 영화, 50%를 감독의 초기작(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영화)에 투자해야 한다.
5. 영화이외의 시청각물, 애니메이션의 제작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시네마쥬는 투자 전문가이자 현 SOFICA 대표자 조합(Association de Représentation des SOFICA, ARS)의 회장을 맡고 있는 세르쥬 아야트(Serge Hayat)와 또 다른 전문가 얀 르 켈렉(Yann Le Quellec)에 의해 설립되어 지금은 4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 상태이다. 10년 간 200명이 넘는 독립영화 감독들이 제출한 1,170편이상의 프로젝트를 분석한 바 있다. 1년에 25 편에서 35편의 영화에 투자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총 290여 편의 영화에 투자하였다. 시네마쥬의 투자위원회는 레 필름 뒤 로장쥬(Les Films du Losange)의 레진 비알(Régine Vial), 인디 세일즈(Indie Sales)의 니콜라 에스바(Nicolas Eschbach), 파테-고몽(Pathé-Gaumont)의 극장 프로그래머, 영화 평론가, 배급사, 독립 영화 감독 등으로 구성된다. 투자 위원회에서는 매년 150-200개의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 시장 혹은 외국 시장을 겨냥한 영화들, 독립영화, 작가주의 영화 등 여러가지 종류, 여러 장르의 영화들이 시네마쥬에 투자 프로젝트를 제출하고 있으며, 영화 별 투자금은 30,000 유로부터 400,000유로까지 다양하다.

⁸ 2015년에 큰 인기를 끌었던 프랑스영화 <알라딘의 새로운 모험>은 74 필름(74 Films)이 제작하고, 파테(Pathé)가 공동 제작자로 참여한 영화이다. 시네마쥬는 이 영화에 100만 유로를 아도스망 방법으로 투자했다. 이 계약에 의해 파테(Pathé)는 4년 후 시네마쥬에게 100만 유로를 주고 권리를 재구매해야 한다.

1.2) 코피노바(Cofinova) 13

올해 SOFICA로서 13번째 해를 맞이한 코피노바는 2015년 정부로부터 7,250,000 유로(약 1000명의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의 총액임)의 투자금을 할당받았다. CNC와 약속한 투자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총 투자금의 55%를 아도스망(adossement)이 아닌 방식으로 투자해야 한다.
2. 아도스망 계약은 다양한 독립 제작사⁹들과 체결이 가능하다.
3. 아도스망 방법이 아닌 투자금 중 90%를 독립 영화에 투자해야 한다.
4. 위험도가 높은 제작 협력 계약(CAP) 방식의 투자금 중 75%를 800만 유로 미만의 영화, 33%를 감독의 초기작(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영화)에 투자해야 한다.
5. 투자금의 8%를 영화 이외의 시청각물, 애니메이션 제작에 투자해야 한다.

코피노바는 미셸 로망-모니에(Michel Romand-Monnier)를 필두로 투자 전문가 알렉시스 당텍(Alexis Dantec), 클로에 부이올(Chloé Bouillol) 등 5명으로 구성된 SOFICA 회사이다. 2004년부터 270편이 넘는 영화에 투자하였고, 그 중 많은 영화가 국제 영화 페스티벌에서 수상 혹은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채널 아르테(Arte)와 손을 잡고, 제작사들이 텔레비전 채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는 것이 코피노바의 특징이다. 코피노바는 1년에 15편 정도의 영화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독립영화이다. 코피노바의 투자 위원회는 일년에 대략 8번 가량 열리며, 각 분야의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투자 위원회에서는 한 번에 10~15편 정도의 프로젝트를 예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투자를 결정한다. 코피노바가 최근 투자한 영화 중에는 역량있는 여성 감독 안느 폰텐(Anne Fontaine)의 <애그너스 데이(Les innocentes)>가 있다. 이 영화의 제작비는 6~700만 유로 정도였다. 배급사의 미니멈 개런티 없이 여러 SOFICA가 SOFICA 연합(Pool SOFICA)¹⁰의 형태로 총 750,000 유로를 투자한 바 있다.

2) 영화 사례 조사

⁹ 다음은 코피노바가 투자하고 있는 독립 영화사들의 목록이다.

Marathon Media, Nord Ouest Films, Haut & Court / Haut & Court TV, Epithète Films, Ciné@, Pyramide Productions, 3B Productions, Tessalit Productions, Le Petit Bureau, Rectangle Productions, Soudaine Compagnie, Archipel 35, Futurikon, Les Films d'Ici, Les Films Pelléas, Les Films du Worso, Liaison Cinématographique, Superprod, Alfama Films Production, MK2 (<http://www.cofinova.com/Cofinova/nosfilms.html>에서 참고)

¹⁰ SOFICA 연합(Pool SOFICA)라는 이름으로 여러 SOFICA 회사들이 하나의 영화에 투자할 수 있다. 이는 SOFICA들이 위험 부담을 나누려는 목적이다. 예를 들어, 2015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인 자크 오디아르(Jacques Audiard) 감독의 <디판>은 SOFICA 5~6개가 연합(Pool)의 형태로 투자한 바 있다.

사례 조사에서 언급된 모든 영화의 제작비 자본 조달 관련 수치는 SOFICA가 2015년 CNC에 제출한 보고서(SOFICA 시스템의 효과와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에 언급된 내용으로 SOFICA 시네마쥬(Cinéma)와의 대면 인터뷰를 통해 얻은 것임을 밝힌다. 여기에 제시된 모든 사례들은 제작 당시 배급사의 미니멈 개런티 혹은 텔레비전 채널의 선 구매가 없어, SOFICA의 투자 없이 제작이 불가능했거나, 힘들었을 영화들에 관한 것이다.

2.1) SOFICA의 투자 없이는 제작이 불가능했던 경우

<호수의 이방인(L'inconnu du lac)>

레 필름 뒤 워르소(Les Films du Worso) 제작, 알랭 기로디(Alain Guiraudie) 감독의 영화 <호수의 이방인>은 2013년 6월 12일에 개봉하여 총 119,000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2013년 칸영화제 주목할만한 시선 부문에서 감독상, 2014년 세자르 영화제 7부문(작품상, 감독상 포함)에 노미네이트되었다. 남자 주인공인 피에르 들라동샴(Pierre Deladonchamps)은 신인 남자배우상을 수상했다. <호수의 이방인>의 총 제작 자본은 1,249,094 유로(한화 약 16억 4000만원)이며, 자본 조달 방법과 금액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호수의 이방인>의 자본 조달

표 내용 : 자본 투자 계약(contrat d'association)에 의한 자본 조달 목록		
출처	설명	금액
Les Films du Worso	제작사	394,094 €
M141	공동 제작(출자)	75,000 €
Films de Force Majeur	공동 제작(출자)	20,000 €
Versus Production	미니멈 개런티 (벨기에)	20,000 €
CNC	선별 지원 ¹¹	460,000 €
PACA	지원금	150,000 €
Soficinéma 9	SOFICA	65,000 €
Cinéma 7	SOFICA	65,000 €
총액		1,249,094 €

자료출처: SOFICA 시네마쥬(Cinéma) 내부자료

¹¹ Avance sur recettes을 의미

영화 <호수의 이방인>은 SOFICA와 계약(contrat d'association)을 맺을 당시, 선 구매도 없었고 배급사인 레 필름 뒤 로장쥬(Les Films du Losange)의 미니멈 개런티도 없는 상황이었다. 촬영 직후 그리고 칸영화제 작품 선정 이후 아르테(Arte)와 카날플러스(Canal+)가 영화를 구입하긴 했지만 이는 제작 이후의 일로, SOFICA의 투자 없이는 제작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자본 조달 목록 중, 공적 형태의 자본을 제외한 민간 자본은 M414 (75,000 유로), 필름 드 포르스 마죄르(Films de Force Majeur) (20,000 유로)와 SOFICA 두 곳 (130,000 유로)이며, 이 중 SOFICA의 비율은 57.78%를 차지하고 있다. 시네마주는 이 영화에 65,000유로를 투자하여 100,000 유로 건어들여, 35,000유로의 수익을 냈다.

<하트브레이커(L'Arnacœur)>

<하트브레이커>는 파스칼 쇼메유(Pascal Chaumeil) 감독의 첫 번째 작품으로 로망 뒤리스(Romain Duris)와 바네사 파라디(Vanessa Paradis)가 각각 남, 여 주인공을 맡았다. 영화 제작 프로듀서로 유명한 로랑 제이통(Laurent Zeitoun), 얀 제누(Yann Zenou), 니콜라 뒤발(Nicolas Duval)의 제작사 콰드(Quad)가 제작했다. 2010년 3월 17일에 개봉하여, 38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2012년 세자르 영화제 5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경력이 있다. <하트브레이커>의 제작 자본은 8,713,197 유로(한화 약 114억 6700만원)이며, 이 중 50% 좀 덜 미치는 금액인 3,463,198 유로(한화 약 45억 6000만원)가 제작사로부터 나왔다. <하트브레이커>의 자본 조달 방법과 금액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 <하트브레이커>의 자본 조달

표 내용 : 자본 투자 계약(contrat d'association)에 의한 자본 조달 목록		
출처	설명	금액
Quad	제작사	3,463,198 €
Chaocorp	공동 제작(출자)	280,000 €
OCS	선 구매	1,800,000 €
Casablanca	PPL	150,000 €
Universal	미니멈 개런티	2,600,000 €
BPI 10	SOFICA	80,000 €
A Plus Image	SOFICA	170,000 €
Cinéma 4	SOFICA	170,000 €
총액		8,713,198 €

자료출처: SOFICA 시네마주(Cinéma) 내부자료

이 영화의 경우, 영화 제작 당시에 텔레비전 채널로부터 선 구매를 형태로 제작비를 지원 받지 않았다. 프랑스 TV(France TV)가 제시한 금액이 제작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제작사는 텔레비전 판권 판매를 극장 개봉 이후로 미루는 대신 제작비를 SOFICA를 통해 투자받기로 결정했다. 제작사의 전략적 선택으로 영화는 개봉 이후 카날플러스(Canal +)와 프랑스 2(France 2)에게 좋은 가격으로 판매된 바 있다. 이 영화는 SOFICA 세 회사의 투자를 받았는데, 그 금액은 총 420,000 유로(한화 약 5억 5300만원)이었다.

2.2) SOFICA의 투자가 배급사의 미니멈 개런티 혹은 외국 판권 이양을 통한 자본 조달을 가능하게 해 주었던 경우

<팀북투(Timbaktu)>

레 필름 뒤 워르소(Les Films du Worso) 제작, 압데라만 시사코(Abderrahmane Sissako) 감독의 영화 <팀북투>는 2014년 12월 10일에 개봉하여 1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다. 2014년 칸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하였고, 2015년 세자르 영화제 7개 부문(작품상, 감독상 포함)을 석권하였다. 2015년 아카데미 영화제 최우수 외국어영화 부문에 노미네이트되기도 하였다. <팀북투>의 총 제작 자본은 2,327,835 유로(한화 약 30억 6000만원)이며, 자본 조달 방법과 금액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 <팀북투>의 자본 조달

표 내용 : 자본 투자 계약(contrat d'association)에 의한 자본 조달 목록		
출처	설명	금액
Les Films du Worso	제작사	340,000 €
Armada Films	제작사	125,000 €
Orange Studio	공동 출자	60,000 €
Arte France Cinéma	공동 출자	200,000 €
Canal +	선 구매	362,310 €
Ciné +	선 구매	50,525 €
Arte	선 구매	150,000 €
CNC	선별 지원	600,000 €
Le Pacte / Orange Studio	미니멈 개런티	320,000 €
Indefilms	SOFICA	120,000 €
총액		2,327,835 €

자료출처: SOFICA 시네마쥬(Cinémage) 내부자료

<팀북투>의 경우, SOFICA의 투자 이전 제작비가 빠듯한 상태였다. 자본 조달 말기, SOFICA의 투자를 받게 되면서 제작사들과 감독이 만족할 정도까지 영화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위의 자본 조달 목록 중, 공적 자본을 제외한 민간 자본은 각각 오랑쥬 스튜디오(Orange Studio)가 공동 출자 형태로 60,000 유로, 르 팩트(Le Pacte)/오랑쥬 스튜디오(Orange Studio)가 미니멈 개런티의 형태로 320,000 유로, SOFICA 인데필름(Indefilms)이 120,000 유로이다. 이 중 SOFICA의 비율은 24%이다.

<러스트 앤 본(De rouille et d'os)>

감독 자크 오디아르(Jacques Audiard)의 6편 째 영화 <러스트 앤 본>은 유명 영화 제작자인 파스칼 코체투스(Pascal Caucheteux)와 그레고르 소를라(Grégoire Sorlat)의 와이낫프로덕션(Why Not Productions)이 제작한 영화이다. 마리옹 꼬띠아르(Marion Cotillard)가 주연을 맡았다. 2012년 5월 17일에 개봉하여 1,933,000명을 동원했다. 2012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경쟁 부문작이었으며, 세자르 영화제에 9개 부문 노미네이트되었고 그 중 4개 부문(남자 신인상, 각색상, 음악상, 편집상)에서 상을 받았다. 골든 글로브(Golden Globes),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BAFTA)에 외국어영화상, 여우주연상(마리옹 꼬띠아르)에 노미네이트되었다. <러스트 앤 본>의 총 제작 자본은 15,550,182 유로(한화 약 204억 6500만원)이며, 자본 조달 방법과 금액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 <러스트 앤 본>의 자본 조달

표 내용 : 자본 투자 계약(contrat d'association)에 의한 자본 조달 목록		
출처	설명	금액
Why Not	제작사	3,943,996 €
Les Films du Fleuve	공동 제작사 (벨기에)	1,886,686 €
France 2 Cinéma	공동 제작 (출자)	900,000 €
Canal +	선 구매	2,600,000 €
Ciné +	선 구매	600,000 €
France 2	선 구매	900,000 €
UGC	미니멈 개런티(프랑스)	3,000,000 €
Soficinéma 8	SOFICA	195,500 €
Uniétoile 9	SOFICA	350,000 €
Cofinova 8	SOFICA	300,000 €
Cofimage 23	SOFICA	74,000 €
La Banque Postale 5	SOFICA	300,000 €
Cinémage 6	SOFICA	500,000 €

총액	15,550,182 €
----	--------------

자료출처: SOFICA 시네마쥬(Cinéma) 내부자료

이 영화의 경우, SOFICA 6개의 회사가 총 1,719,500 유로(민간 자본의 36.43%, 나머지는 UGC의 미니멈 개런티 3,000,000 유로)를 투자하였다. SOFICA의 투자는 글로벌 배급 계약에 따르는 미니멈 개런티를 확보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 영화는 세계 25개의 나라에 판매 (400만 유로)되었다.

<인사이드(Insider)>

<인사이드(Insider)>는 52분짜리 에피소드 6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큐멘터리로 스테판 리보자드(Stéphane Rybojad)가 감독하고, 메멘토 프로덕션(Memento)이 제작했다. 2015년 3월 처음으로 방영되었다. 다큐멘터리 <인사이드>는 총 1,032,901 유로(한화 약 13억 6000만원)의 제작비를 제작사, 선 구매, 프랑스 국립영화센터의 Web 시청각물 관련 산업을 위한 지원 기금인 Cosip, 프랑스 정부의 세액 공제액, SOFICA를 통해 충당했다. <인사이드>의 자본 조달 방법과 금액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5] <인사이드>의 자본 조달

표 내용 : 자본 투자 계약(contrat d'association)에 의한 자본 조달 목록		
출처	설명	금액
Memento	제작사	260,901 €
Planete	선 구매	310,000 €
CNC	Cosip	240,000 €
국고(Trésor Public)	세액 공제	162,000 €
Sofitvcine	SOFICA	60,000 €
총액		1,032,901 €

자료출처: SOFICA 시네마쥬(Cinéma) 내부자료

<인사이드>의 자본 조달 목록을 살펴보면 총 금액의 6% 정도를 SOFICA를 통한 민간 투자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전체의 40%가 세액 공제, CNC의 Cosip 등 공공 지원을 받을 것을 고려해 볼 때, 민간 투자액이 적은 편이었다. 이 다큐멘터리의 경우, SOFICA의 투자가 위의 두 영화처럼 다른 종류의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네마쥬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에서는 위의 자본 조달 금액만 확인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다.

나오는 말

시네마쥬와의 대면 인터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따르면, 독립영화 제작사의 경우 제작 초기 두 가지의 형태의 투자금을 염두해 두고 있었다. 첫 번째 형태는 공적 투자금(financement public)이며 두 번째 형태는 민간 투자금(financement privé)이다. 공적 투자금에는 CNC, 지방 도시 등의 지원금, 세액 공제액 등이 포함되는데, 이 투자금은 환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 반면, 민간 투자금은 SOFICA와 금융 기관 등의 투자금을 말하는데, 이 투자금은 환급하거나 권리를 양도해야만 한다. SOFICA의 경우 제작사는 투자금¹²을 제공받는 대가로 해외, TV 판권의 75% 정도를 양도하고 있다.

SOFICA 코피노바의 클로에 부이올(Chloé Bouillot)에 따르면, 영화의 시나리오가 좋고 프랑스 내에서나 해외에서 예술적, 경제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독립영화 제작사들이 SOFICA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SOFICA의 투자금은 민간 자본을 기본으로 하여 운영되는 것으로서 CNC와 같은 기관에서 주는 공적 형태의 지원금이 아니기 때문에 영화의 경제적 잠재력이 많이 고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SOFICA의 입장에서는 투자위원회의 결정 이후에 진행되는 평가/견적(estimation) 단계가 투자의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된다. SOFICA의 구성원 자체가 영화 산업을 잘 알고 있는 경제 전문가, 투자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그 때문인 것이다.

¹² SOFICA 투자금의 경우 제작비의 5%~2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자료출처]

「Liste des SOFICA agréées en 2015 pour les investissements de 2016」, CNC.
「Charte des SOFICA agréées en 2015 pour les investissements de 2016」, CNC
「Les SOFICA: Un dispositif original de financement du cinéma et de l'audiovisuel」, CNC,
2011년 8월
「Les SOFICA: rapport de mission」, Pierre Chevalier, CNC, 2008년 7월
「Un film français sur deux fait de sofica」, <리베라시옹(Libération)>, 2015년 12월 7일
코피노바(<http://www.cofinova.com>)
프랑스 국립영화센터(<http://www.cnc.fr>)

인터뷰

SOFICA 시네마쥬(Cinéimage)
일시: 3월 28일 오후 3시-4시 (프랑스 시각)
장소: 9 rue Réaumur 75003 Paris
인터뷰 대상자: 크리스토프 살바잉(Christophe Salvaing)
컨택: csalvaing@cinemage.fr

SOFICA 코피노바(Cofinova)

일시: 3월 29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프랑스 시각)
장소: 42, rue René Boulanger, 75010 Paris
인터뷰 대상자: 알렉시스 당텍(Alexis Dantec), 클로에 부이올(Chloé Bouillol)
컨택: dantec@cofinova.com, bouillol@cofinova.com, laura@thefrench.fr

[별첨]

시네마쥬(Cinémathèque)

크리스토프 살바잉 (명함)



시네마쥬 문패



시네마쥬 설명 전단지(민간 투자자 용, 앞)

Contact : Christophe Salvaing
01 80 48 21 90
csalvaing@cinemage.fr
9, rue Réaumur 75003 Paris

S.O.F.I.C.A.
Cinemage

**LEADER DU MARCHÉ DES
SOFICA DEPUIS 2008 !**

**BÉNÉFICIEZ D'UNE STRATÉGIE INNOVANTE ET DIVERSIFIÉE DANS LE CINÉMA...
ET D'UNE RÉDUCTION D'IMPÔT DE 36%**

POURQUOI INVESTIR DANS LA SOFICA CINEMAGE ?

- ▶ **Le Cinéma : un marché porteur, structuré, acyclique et riche en opportunités**
 - en **bonne santé, stable et en croissance depuis des années** : le marché progresse de 3 à 5% par an en moyenne depuis 10 ans (208 millions d'entrées en 2014, soit +8% par rapport à 2013)
 - **strictement encadré** par le Centre National de la Cinématographie (CNC), **protégé** par une législation favorable, **soutenu par des obligations d'investissement** et de diffusion des chaînes françaises
 - **financé** par des institutions financières spécialisées (Coficiné, Cofiloisirs) contre garantis par l'IFCIC
 - **décorrélé des marchés financiers** : c'est un marché d'offre et un loisir peu onéreux en temps de crise
 - **stimulé par des relais de croissance** : vidéo à la demande (VOD), séries télévisées pour le marché international, films en 3D...
- ▶ **Le film constitue un support d'investissement profitable qui bénéficie :**
 - de **recettes multiples et diversifiées** : sur plusieurs supports (salles, vidéo, VOD, TV), sur plusieurs territoires et sur une longue période
 - **d'un fort effet de levier** grâce aux soft monies et aux préventes : en finançant 50% du budget d'un film, on peut conserver 100% de l'actif
 - **d'une bonne liquidité** : il existe un marché secondaire actif pour les films après leur premier cycle d'exploitation (5 ans)
 - **d'une bonne lisibilité** : entrées salles contrôlées, contrats inscrits aux Registres du Cinéma
 - **d'une faible sinistralité**

LE CINÉMA : UN MARCHÉ EN CROISSANCE

Fréquentation des salles de 2004 à 2014
(en millions d'entrées)

Année	Fréquentation (millions d'entrées)
2004	190
2005	180
2006	185
2007	180
2008	190
2009	200
2010	205
2011	215
2012	205
2013	200
2014	208

DES SUCCÈS SÉLECTIONNÉS PAR CINEMAGE

▶ **La SOFICA : un dispositif fiscal attractif, efficace et pérenne**

- un produit qui offre **le plus important taux de défiscalisation sur l'IR : 36% en 2015**
- un dispositif **félicité par la Cour des comptes** (avril 2014) et **salué par l'IGF** (juin 2011) qui lui a attribué la meilleure note en terme d'efficacité pour l'économie et pour l'emploi
- un **produit fortement encadré** par les autorités de tutelle (DGFIP, CNC, AMF)
- un **dispositif stable** (création en 1985) du fait de son utilité unanimement reconnue pour l'industrie du cinéma et de la télévision

시네마쥬 설명 전단지(민간 투자자 용, 뒤)

▶ CINEMAGE : une position de leader qui constitue un avantage concurrentiel fort

- **SOFICA leader du marché pour la 7ème année consécutive** en terme de volume levé et géré (environ 10 M€ par an)
 - témoigne de la **confiance des autorités de tutelle** (DGFIP, CNC, AMF)
 - assure une **mutualisation et une diversification** optimale des investissements
 - confère à Cinémage des **droits de premiers regards** sur les films des principaux producteurs
 - crée un **effet de marque** auprès des souscripteurs
- **une équipe rôdée depuis 10 ans** issue du capital risque et du secteur du cinéma
- **un track record unique dans le secteur :**
 - de **nombreux succès commerciaux** : 17 films à plus de 1 million d'entrées
 - une visibilité inégalée en Festivals (Cannes, Berlin, Venise) : 74 sélections, 18 prix reçus dont la **Palme d'Or 2015, Deephan** de Jacques Audiard
 - de **nombreuses récompenses aux César** : 115 nominations, 24 César

UNE RÉDUCTION D'IMPÔT DE 36%

- ▶ En 2014, les personnes physiques souscripteurs en numéraire au capital de Cinémage ont bénéficié d'une **réduction d'impôt égale à 36%** des sommes effectivement versées dans la double limite de **25% de leur revenu net global imposable et d'un plafond de 18.000 € par foyer fiscal**
- ▶ Le plafonnement global annuel de la somme des avantages fiscaux pouvant être obtenus en matière d'impôt sur le revenu, fixé à 10 000 €, est majoré à 18 000€ en cas souscription au capital d'une SOFICA
- ▶ **L'investissement est bloqué sur 5 ans minimum, 10 ans maximum**

LES SOFICA CINEMAGE 1 A 10 EN QUELQUES CHIFFRES :

- ▶ Plus de 1170 projets analysés, présentés par plus de 200 producteurs indépendants
- ▶ Près de 65 M€ investis dans le cinéma à ce jour
- ▶ Plus de 250 films financés
- ▶ 70 sociétés de production aidées en développement

LES FILMS CINEMAGE RÉCOMPENSÉS AU FESTIVAL DE CANNES



LES FONDATEURS DE CINEMAGE



SERGE HAYAT, cofondateur et président des SOFICA CINEMAGE, est également :

- ▶ **président de l'Association de Représentation des SOFICA**, et représente à ce titre l'ensemble des SOFICA auprès des autorités de tutelle (CNC, Ministère de la Culture, DGFIP)
 - ▶ **gestionnaire pour 123 Venture**, des sociétés 123 Capucines dédiées aux **investissements dans la distribution de films**
 - ▶ enseignant à l'ESSEC depuis 25 ans, fondateur et **président de la Chaire Media & Entertainment de l'ESSEC** dont sont issus de nombreux jeunes professionnels du secteur
- Serge est diplômé de l'ESSEC et de l'Ecole Centr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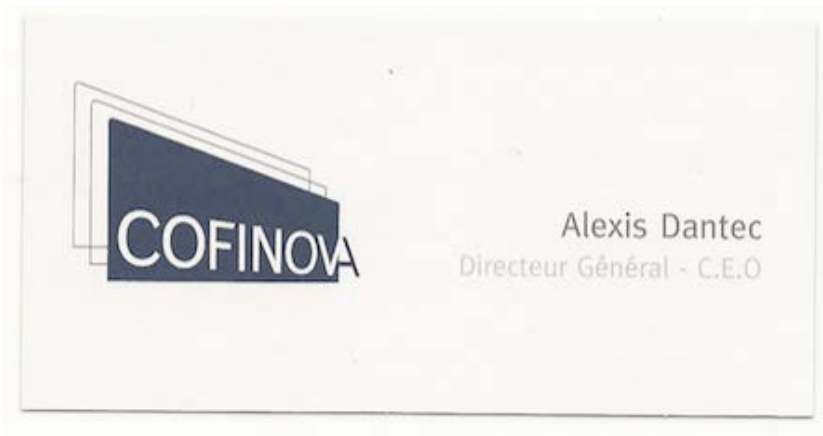


YANN LE QUELLEC, cofondateur et DG des SOFICA CINEMAGE, est également :

- ▶ ancien DG zone Europe du **hedge fund de Citi dédié au cinéma**
 - ▶ fondateur et dirigeant de **White Light Film Finance** qui conseille producteurs et distributeurs, notamment Gaumont et Wild Bunch
 - ▶ **membre de la commission « Etude et rentabilité du cinéma français »** initiée par le CNC en 2013
 - ▶ enseignant à **HEC** et intervenant à la **FEMIS**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 Cinéma)
- Yann est diplômé d'HEC et de l'EHESS

코피노바(Cofinova)

알렉시스 당텍(명함, 앞)



알렉시스 당텍(명함, 뒤)

